



2026. 6. 5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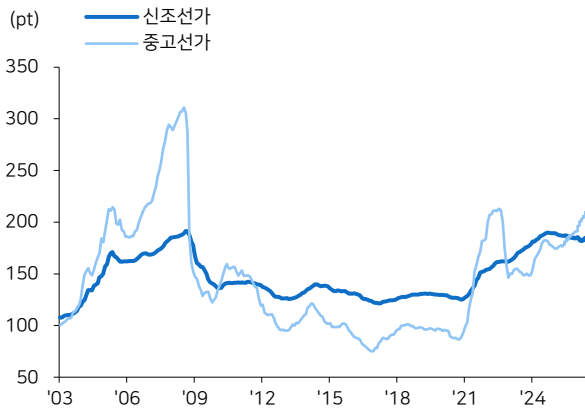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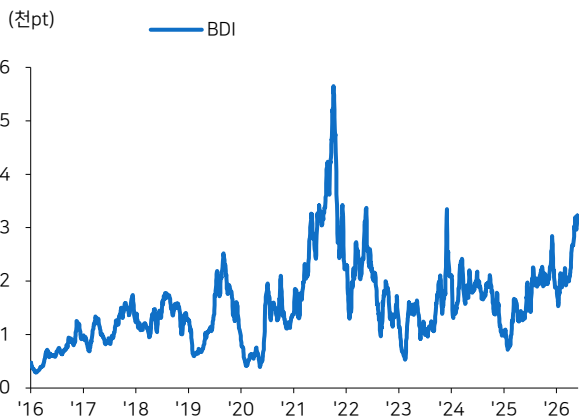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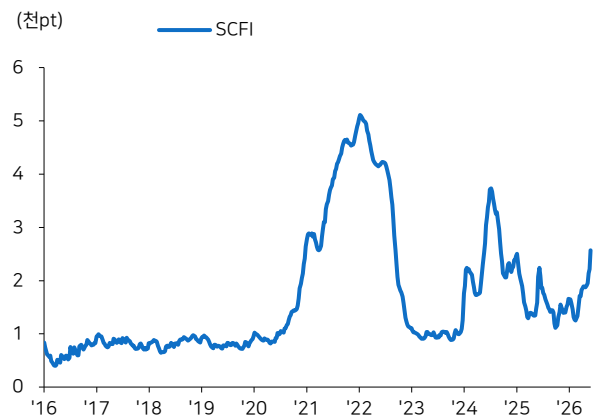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5.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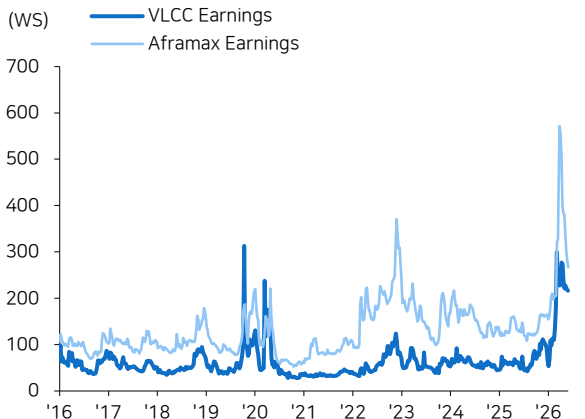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205.0p (-8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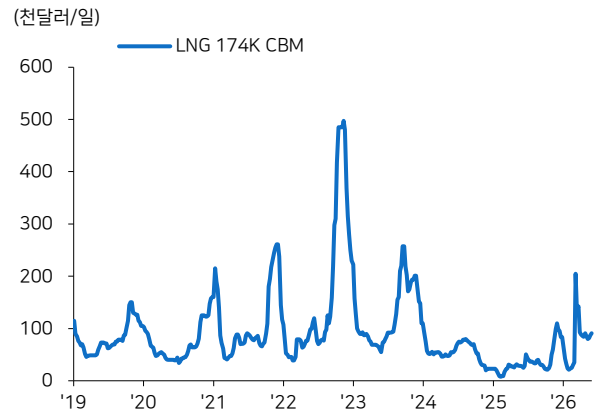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571.7(+353.6 WoW)



VLCC Spot Rate 216.2WS (-2.3p WoW)



LNG Spot 운임 91.0천달러 (+3.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idders line up for Eni's third giant FLNG unit for Mozambique (TradeWinds) <https://zrr.kr/6p615C>

이탈리아 Eni가 모잠비크 해상에 투입할 연산 600만 톤 규모의 FLNG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입찰을 진행하면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Wison New Energies 등이 수주전에 나섰다고 보도됨. 이는 Area 4 광구 맘바 복합구조의 가스 자원을 상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건조된 FLNG 중 최대 규모라고 전해짐. Eni는 이미 모잠비크 해상에서 Coral Sul FLNG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Coral Norte 프로젝트를 2호선을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는 등 FLNG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최근 삼성중공업이 미국 델핀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FLNG 신조 및 개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알려짐.

한국, 캐나다에 초대형 수소 프로젝트 제안...잠수함 수주전 '히든카드' (더구루) <https://zrr.kr/wSMLIK>

한화 주도의 '팀 코리아'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3조 원 이상 규모의 수소 인프라 투자 계획인 '프로젝트 비버'를 제안했다고 보도됨.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터뷰를 통해 잠수함 수주 시 현대차가 약 31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수소 액화 플랜트, 충전소, 수소 트럭 공장 등을 건설하고 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라고 밝혔으며, 전기차 대신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 및 미국의 압박을 고려한 전략이라 전해짐. 정부와 한화는 이번 잠수함 협력이 캐나다 GDP에 미칠 막대한 효과와 더불어 LNG 및 핵심 광물 수입 확대 등 전방위적 경제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주 총력전을 펼쳤다고 알려짐.

U.S. Eyes Warships from Japanese and South Korean Shipyards (Naval News) <https://zrr.kr/toEou0>

미국 국방부가 자국 내 해군 조선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 조선소로부터 주요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펜타곤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1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요청은 향후 우방국 조선소를 통한 군함 조달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미 해군은 한국의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및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미래 크루저·구축함 및 호위함 인벤토리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및 조달 연구를 지시받았다고 전해짐.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초기 선박을 건조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유동성을 투자해 생산을 미국 본토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백악관의 '브릿지 전략'에 기반하고 있으나,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미국 법령과 국내 공급망 및 기밀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의회의 반발 등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알려짐.

HD Hyundai Heavy Industries Partners with Greece's Maritime Power for Naval Defense (Naval News) <https://zrr.kr/kZ5OuT>

HD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최대 조선소인 Skaramangas 조선소와 함정 및 미래 해군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그리스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함정 건조, MRO 사업을 비롯해 무인수상정(USV) 등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현지 조선소 참여를 의무화한 그리스 정부의 대규모 해군력 현대화 계획인 '아젠다 2030'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해짐. 필리핀, 페루, 인도 등에 이어 유럽으로 방산 거점을 넓힌 HD현대중공업은 그리스와의 반세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조선 및 해양 방산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짐.

DHT ploughs profit into VLCC newbuilding order with early delivery (TradeWinds) <https://zrr.kr/a3M0r6>

미국 선사인 DHT Holdings가 한화오션에 2028년 8월 인도 예정인 VLCC 1척을 발주했음이 보도됨. 이번 신조선은 DHT Holdings가 올해 1분기에 한화오션으로부터 인도받은 두 척의 선박과 동일한 사양의 자매선으로, 뛰어난 연료 효율성과 배출가스 저감 및 대형 운송 용량을 갖추도록 건조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선사 측은 선박 건조 대금을 영업 현금 흐름과 가용 유동성,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최근 탱커 시장의 기록적인 호황 속에서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선단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 "4대 보험 미가입 하청 직원, 출입 금지" 초강수 (뉴스 1) <https://zrr.kr/UfQUDj>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 전원의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며, 미가입 시 오는 7월부터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강수를 뒀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용자성이 원천으로 확대되는 노조법 개정 등에 대응하여,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원청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전해짐. 그동안 조선업계는 수주 변동성에 따라 일당제 중심의 '물량팀' 등 재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4대 보험 미가입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강제 조치로 인해 하청업체들은 급격한 비용 부담과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